

남옥(南玉)의 『일관기(日觀記)』 연구*

: 대상·보기·쓰기 문제를 축으로

김보경*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남옥의 문재(文才)와 제술관으로서의 사명의식
3. 『일관기』의 세 가지 코드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남옥(南玉: 1722~1770)의 사행록 『일관기(日觀記)』를 대상·보기·쓰기의 세 가지 코드로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밝힌 논문이다.

남옥은 계미사행(1763~1764)의 제술관(製述官)으로서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관기』는 그 문학적 산물이다. 우선, 그는 일본에 대해 종합적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도 문학 자체를 화제로 삼거나 문학으로 교류한 일본인들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는 등 문(文)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출하였다. 둘째, 그는 기본적으로 화이(華夷)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대상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다. 이것은 문학·학술·예술 방면에서 특히 뛰어나다. 셋째, 『일관기』의 구성은 방대하되 체계적이며, 기록은 치밀하되 절제되어 있다. 그것이 취하고 있는 서술 방식은 체험과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안이다. 『일관기』는 사행록으로서 체험을 기록하는 방식 자체로도 의의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 세계화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서울대학교 BK 조교수

가 있으며, 그 시각과 정신은 조선후기 정신사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데에 일조하였다.

주제어 남옥, 일관기, 통신사, 계미사행, 제술관

1. 들어가는 말

계미사행(1763~1764)은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실질적인 대미이자¹⁾ 양국 문화 교류의 절정을 이루었던 사행이다.

이 사행단은 ‘반 천’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저마다 ‘일능(一能)’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로서 각 방면의 문화 교류에서 크게 활약하였다.²⁾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문학 방면이었다. 제술관(製述官)과 삼서기(三書記)등 사문사(四文士)의 문학적 능력이 모두 뛰어났으며,³⁾ 이들을 중심으로 양국 시문 창화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단일 사행으로는 가장 많은 수의 사행록이 지어졌고 그 기록자의 신분이 정사를 비롯해 제술관·서기·군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는 점도 이목을 끈다.⁴⁾

1) 계미사행은 12차례의 통신사행 중 제11차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12차 사행은 대마도까지밖에 가지 못했으나, 강호(江戶)까지 갔다 온 것으로 치면 이 사행이 조선후기의 마지막 통신사행이 된다.

2) 『해사일기(海槎日記)』, 1763년 11월 22일. “半千從人 雖未能詳知其某人之有實行 某人之有奇才 而概論之 有能於文詞者, 有能於武藝者 有能於醫藥者 有能於譯學者 有能於書畫者 工於技藝 習於律呂 善御馬而能制船者 誦兵家而習邊例者 無不畢來 以至歌者舞者博者奕者陸者梢手樂工占者相者潛水者俳優者針線者雕刻者結聽者木手冶匠砲手巫覡 舉皆有之 亦可謂人皆有一能也.”

3) 제술관은 남옥(南玉), 서기는 원중거(元重擧)·성대중(成大中)·김인겸(金仁謙)이다. 이외에, <우상전(虞裳傳)>을 통해 잘 알려진 이언진(李彦璫)도 이때 역관으로 수행했다.

이와 같은 문학적 성향 속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람이 바로 남옥(南玉: 1722~1770)이다. 그는 제술관으로서 통신사의 공식 문서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문사의 시문 창화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사행 체험을 바탕으로 『일관기』라는 사행록을 남겼다. 제술관으로서 사행록을 남긴 사람이라면 흔히 신유한(申維翰)을 꼽거니와, 남옥은 그와 문학적 능력에서 우열을 다툰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관기』는,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해행총재》를 대표하는 것으로 꼽히는 『해사일기』보다 내용이 더 방대하고 상세하다. 그는 이외에도 『일관시초』·『일관창수』 등의 시집을 남기기도 했다. 이 3종을 합치면 그는 역대 사행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행 시문을 남긴 사람이 된다.⁵⁾

『일관기』는 제목부터 차별성을 보여 준다. 이전 사행록은 ‘해사(海槎)·동사(東槎)·부상(扶桑)’ + ‘(일)기·(일)록’ 형태의 관습화된 제목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일관기』는 사행의 대상 국가를 ‘일(日)’로 객관화하고, 그 국가에 사행하는 목적을 ‘관(觀)’으로 언표하였다. 다시 말하면, ‘일관기’는 ‘일본을 관찰한 기록’으로서, 사행(록)의 목적 내지 문제 의식을 제목에서부터 표방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남옥의 사행록 『일관기』를 연구하고자 한다. 남옥이 일본의

4) 『해사일기』(正使 趙曦), 『일관기(日觀記)』·『일관시초(日觀詩草)』·『일관창수(日觀唱酬)』(제술관 남옥), 『승사록(乘槎錄)』·『화국지(和國志)』(서기 원중거), 『일본록(日本錄)』(서기 성대중),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서기 김인겸), 『명사록(溟槎錄)』(漢學上通事 吳大齡), 『사록(槎錄)』(名武軍官 閔惠洙)·『계미수사록(癸未水槎錄)』(미상) 등. 구지현은 『계미수사록』의 저자를 제기선장(騎船將) 변탁(卞瑒)으로 보았다. 구지현, 『『계미수사록』에 대한 재검토-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참조.

5) 그럼에도 그의 이름과 저작들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불우한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을 듯싶다. 그가 얽힌 조재호 및 최익남의 옥사 모두 사도세자(思悼世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성진, 『남옥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필담 창화』, 『한국한문학연구』 19, 1996, 277면 참조.

무엇을 / 어떻게 보고 / 어떻게 썼는가'가 주 관심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대상'의 문제이고 '보기'의 문제이며 '쓰기'의 문제이다. 본고는 이 세 가지를 코드로 삼아서 『일관기』⁶⁾를 고찰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밝히도록 하겠다.

2. 남옥의 문재(文才)와 제술관으로서의 사명의식

남옥⁷⁾은 인재였다. 그러나 “서얼 중의 인재”였다.⁸⁾ 신분적 차별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서얼로서 인재라는 조건은 축복이 아니라 재난이었다. 신분적 불우는 경제적 궁핍과 맞물려 있었다. 1746년(영조 22) 매문(賣文) 행위로 유배된 것은 그의 궁핍한 형편을 보여 준다. 정치적으로도 환란이 심했다. 1762년(영조 38) 6월 조재호(趙載浩)의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 마침내 1770년(영조 46)에 최익남(崔益南)의 옥사 때에 이봉환(李鳳煥)과 친하다 하여 투옥되고 5일 만에 몰고되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생애였지만, 문재(文才)만은 당당히 평가받았다. 제술관으로 뽑힌 것도 그 문재 덕분이었다. 일본 사행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 문사들은 그를 최고의 문사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⁹⁾

6)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것은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다.

7) 남옥의 자는 시운(時韞), 호는 추월(秋月)이다. 조선 개국 공신 남재(南在)의 13대손이며 직제학(直提學) 남간(南簡)의 11대손이다. 간(簡)의 7대손 구봉(龜峰) 계하(季夏)의 측실자(側室子)인 명핵(溟翮)이 남옥의 증조부이니, 이때부터 서계(庶系)가 되었다. 남옥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성진 앞의 논문, 276-278면 참조

8) 『영조실록』, 41년 6월 18일. “鳳漢 又薦李鳳煥南玉成大中爲庶流中人才 請次第調用上允之”

9) 산근화양(山根華陽), 『장문계갑문사(長門癸甲問槎)』 서문 “辛卯幕中李東郭超乘矣 爾後此行南秋月 成龍淵亦爲巨擘焉” ; 평린(平麟), 『경개집(傾蓋集)』. “學識文章重 榮名詩賦高 詞場誰第一 秋月自才豪”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259

복명한 다음 해에 수안(遂安) 군수에 제수된 것 역시 그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한편, 그는 교유 관계로 볼 때, 이봉환·박경행 등과 일종의 문학적 결사(結社)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1748년(영조 24) 사행의 제술관과 서기였다. 특히 이봉환과 남옥은 절친한 시우(詩友)로서, 조재호 가나 흥봉한가와 같은 경화거족(京華巨族)의 시사에서 활동하였다.¹⁰⁾ 이들의 시체는 ‘초림체(椒林體)’라고 불렸으며, 그 창작 경향을 이덕무 등의 시인들이 계승하였다.¹¹⁾ 그만큼 그는 당시 시단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문학적 능력에 비해 그의 문학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문집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¹²⁾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관기』 등 계미사행 관련 시문은 더욱 소중해진다.

남옥이 계미사행에 참여한 것은 42세 때였다. 육체적으로 고되긴 했으나, 이 사행 기간이야말로 자신의 문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득의한 시절이었다. 생애를 통틀어 그를 가장 보람 있게 수식하는 말은 바로 ‘제술관’이었다.

제술관은 일본인들과 시문을 주고받고 필담을 나누면서 우리나라의 우월한 문화(文華)를 선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책이었다. 서기들과 달리

면에서 재인용. ; 오전원계(奧田元繼), [양호여화(兩好餘話)] 발문. “今茲甲申聘使同行四百八十餘人 其中筆翰如流 言語立成 間有奇妙可評者 唯秋月一學士而已” 김성진, 앞의 논문, 274면에서 재인용.

10) 신익철, 「18세기 중반 초림체 한시의 형성과 특징-이봉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19(2001), 43면 참조

11)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 1999, 291면 참조.

12) 아우 남중(南重)이 쓴 「부통훈대부행수안군수공유사(祔通訓大夫行遂安郡守公遺事)」에 의하면 이 글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일관기』·『일관시초』·『일관장수』 외에도 『할반록(割脾錄)』(1책), 『명악시사(溟嶽詩史)』(1책), 『시집(詩集)』(2책), 『문장(文章)』(2책)이 있었다고 한다. 김성진(1996), 277면 참조

삼사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으면서, 통신사 일행의 문서를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일본 문사나 지식인들과의 필담 장화를 주도하였다.¹³⁾ 그러므로, 신유한이 자부심 어린 푸념을 쏟아낸 데서도 알 수 있듯이,¹⁴⁾ 그 맡은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였다.

남옥 역시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정사, 삼서기 등과 어울려 지은 <뜻을 보임(示意)>이라는 시에서, 그는 조조(曹操)의 참모로서 기실(記室)을 관장하였던 완우(阮瑀)를 끌어와 제술관인 자신을 빗대고, 상대의 강(剛)과 유(柔)에 좌우되지 않고 내 중심을 잡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¹⁵⁾

제술관으로서의 자의식과 자부심은 『일관기』의 구성에도 간여하여, 일기체 기록의 거의 처음과 마지막을 제술관과 관련된 일화가 장식하고 있다.

먼저 발행할 때를 보자. 영조는 그에게 “제술관을 설치한 시초와 저 나라에서 수용한 일”을 물었다.¹⁶⁾ 곧이어 제술관과 서기의 시재를 시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시제는 ‘추선(秋蟬)’. 남옥이 제일 먼저 내었고 영조로부터 칭찬을 받았다.¹⁷⁾ 영조는 “그대들은 다만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나라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 당부하였다.¹⁸⁾ 이는 조선

13)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1990), 66-67면 참조.

14) 『해유록』, 서문. “所以接應彼人言語 宜耀我國文華者 必責於製述官 是其事繁而責大”

15) 『해사일기』, 「수창록」, <뜻을 보임[示意]>. “官樓秋雨卜清遊 紅燭華茵散客愁 阮瑀掌書慚技藝 仲山宣命在剛柔” 조엄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유(柔)로써 일본을 인도, 교화하고 굴복시킬 뜻을 밝혔다.

16) 제술관은 조선전기에는 정식 사행직이 아니었다. 문장에 능한 사람들이 사행에 참여하여 일본 문사들과 시문을 나누었던 문화 교류가 그 중요성을 더해 가면서 점차 조선후기에 정식 사행직으로 성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장순순, 앞의 논문, 37면 참조.

17) 『일관기』, 1763년 7월 24일. “時雨新霽 蟬聲滿殿 閣命承旨 書秋蟬二字 使賤臣與書記製進 擊所授簡少退 復入以進 猥蒙褒嘉”

이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며, 남옥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앞서서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복명할 때를 보자. 영조는 남옥에게 일본에서 수용한 시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의 문장의 수준이 어떠한지 물었다. 그리고 참판 조명정(趙明鼎)에게 남옥의 문재에 대해 물었다. 조명정은, “남옥은 마땅히 신유한, 홍세태와 우열을 겨룰 만합니다”라고 답하였다.¹⁹⁾ 홍세태는 1682년(숙종 8)임술사행에 서기로, 신유한은 1719년(숙종 45) 기해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문명이 높았던 문사들이다. 그런데 남옥이 이들과 우열을 겨룰 만한 사람으로 당당히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왕 앞에서 이루어진 평가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당대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아도 좋다.

그 밖에 『일관기』의 내부 구성이나 내용 면면에서 제술관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조선이나 일본이나 시대 상황은 많이 변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문사들의 위치도 동요하고 있었다. 남옥은 문학에 대한 자부심은 높으나 현실이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겪게 되는 괴로움을 고백하곤 하였다.

그는 제술관이었으나 애초 서기로 부름을 받았었고,²⁰⁾ 삼서기들과는 서열이라는 신분적 유대감을 갖고 있던 터였다. 무엇보다 그들의 정신적 공분모를 이루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던 것은 문학이었다. 문학은 이들

18) 『승사록』, 1763년 7월 24일 “因下教曰 爾等奚但文字 無爲國羞而來”

19) 『일관기』, 1764년 7월 8일 “仍論 以洪世泰文章 予早已聞之 其後 製述書記之文 誰可爲最 趙對以申維翰當爲第一 仍問南某比二人何如 趙對以維翰不及世泰 世泰文不及維翰 南玉當與申洪高下矣”

20) 계미사행이 있기 1년 전인 1762년(영조 38) 8월에 서명옹(徐命膺)·엄인(嚴璘)·이득배(李得培)가 통신사행의 삼사로 차정되었다. 그해 11월에 이득배가 남옥을 서기로 불렀으나 간절한 사정을 아뢰고 사양했었다.

의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의 근거였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썩 달라져서 제 술관과 서기들의 위치가 전락하여 역관(譯官)이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²¹⁾

문사들이 일본인들에게 수응하는 데에도 문제가 많았다.

문사(文辭)라는 것은 기예 중에서도 도(道)에 가까운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하여금 오랑캐에게 수응해서 지식을 자랑하고 재주를 뽐내게 하니 저 화원, 의원이나 활 쏘고 말 달리는 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설사 그 수응한 것이 모두 가히 전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오히려 말할 것이 못 되거늘, 하물며 백에 하나도 음미할 만한 말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극히 형편없는 운에 화답하여 지극히 추악한 오랑캐에게 아첨하는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혹은 잠깐 사이에 10편을 쓰고 혹은 하루에도 종이 100장을 넘기까지 하니, 비록 자건(子建)이나 자안(子安) 같은 민첩한 솜씨라고 해도 어찌 다 일일이 글로 이를 수 있겠는가. 저들 풍속에다 우리의 추악함을 드러내서 영원히 비웃음을 전하게 하니, 나라를 빛나게 하고자 한 것이 도리어 나라를 욕되게 한 셈이 되고 재주를 과시하고자 한 것이 도리어 재주를 더럽히는 것이 된 셈이다. 이것은 조정에 아뢰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먼저 그 나라에 통보하여 직접 사행이 스스로 결단하여 폐지할 수 있다.²²⁾

그는 “문사(文辭)를 하는 자는 기예 중에서도 도(道)에 가까운 자”라고 하였다. 문사에 대한 강한 자부심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들이 일본에서 한

21) 『일관기』, 1763년 9월 23일. “蓋製述書記 本白衣從行 名在賓佐 初不可文法拘 亦不可以師律束... 人才漸下 世級漸夷 或拘之以文法 束之以師律 而象胥陵侮 名目混淆”

22) 『일관기』, 『총기』. “文辭者 技藝中近道者也 今使之酬應蠻夷 誇多耀長 與夫畫醫射馳者 奚異 使其酬應者 皆可傳 猶不足言 況以百無一味之語 和極惡之韻 媿極醜之蠻 或頃刻十篇 或日過百紙 雖子逮子安之捷 其何能一一成章乎 露醜於殊俗 傳笑於久遠 欲以華國者 適所以辱國 欲以夸才者 適所以誣才 此則不待上秦朝廷 先通其國 而直自使行 足可斷而罷之矣”

일이란 오랑캐의 형편없는 시에 화답해서 아첨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식(曹植)이나 왕발(王勃) 같은 민첩한 재주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그 수응의 고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토로하였다. 이것은 작계는 개인적인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고 크계는 국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 이에 그는 쓸데없는 수응의 노역을 폐지할 것을 과감히 제안하였다.

남옥은 제술관으로서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문학 교류의 중심에 있는 자가 스스로 수응 폐지를 주장하는 아이러니는 뒤집어 보면 양국 문학 교류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설적인 비판이니, 이 또한 제술관으로서 철저한 자의식과 사명의식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일관기』는 바로 이러한 의식의 문학적 산물이다.

3. 『일관기』의 세 가지 코드

3.1. 대상 : 종합적 관심과 문(文)에 대한 집중적 관심

계미사행 당시 전대 사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또 남옥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²³⁾ 이렇게 사행을 경험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는 일본에 관한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보다 더 상세한 정보와 방대한 지식을 제공해 준 것은 역시 사행록이었다. 계미사행 이전에 조선은 공식적인 사행만 열 차례나 경험했다. 그리

23) 그가 떠날 때 시문으로 전별한 자들 중에 박경행(朴敬行)·이봉환·유후(柳湏)는 무진사행 때 각각 제술관·정사 서기·부사 서기로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일관기』, 1763년 7월 24일 이봉환과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 있고, 유후에 대해서는 남옥이 그 손자며느리의 아버지가 된다. 한편, 부산에서 만난 칠원 현감 전광국(田光國)은 정묘사행에 참여했던 자로서 자신의 사행 경험 들려 주었다. 『일관기』, 1763년 8월 23일.

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수의 사행록이 지어졌다. 남옥 또한 국내에서 이 기록들을 통해 일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것이 실제 경험한 것과 꼭 같을 수는 없었다. 남옥이 실제 사행하면서 겪은 일본은 1763~1764년 현재의 살아 있는 현실이었다. 그는 과거의 기록과 경험을 참고하는 한편, 자신이 몸소 노정 중에 만난 일본의 현실을 충실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남옥이 만난 일본의 현실은 무엇이였을까. 『일관기』의 구성을 살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다. 『일관기』는 춘·하·추·동의 총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춘은 4권의 「범례」로 되어 있는데, 차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事例)·원액(員額)·반전(盤纏)·복정(卜定)·마문(馬文)·사연(賜宴)
·서계식(書契式)·복명식(復命式)·수회답식(受回答式)·연향(宴享)·치제(致祭)
·여마(輿馬)·마도예사(馬島例賜)·좌목(座目)·노정(路程)·승선(乘船)
·하륙(下陸)·분로(分路)·서계(書契)·증수(贈酬)·예분(例分)·공대(供待)
·창수제인(唱酬諸人).

다음, 하·추, 그리고 동의 반 권 가량은 조정을 하직하면서부터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 일본에 도착하여 강호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동의 뒷부분에는 「총기」가 붙어 있다. 차례는 다음과 같다.

폭원(幅員)·산수(山水)·각주(各州)·황계(皇系)·원계(源系)·관제(官制)
·부세(賦稅)·병제(兵制)·물산(物產)·궁실(宮室)·신불(神佛)·학술(學術)
·문장(文章)·서화(書畵)·인장(印章)·서책(書冊)·의약(醫藥)·형신(刑訊)
·관금(官禁)·금화(禁火)·의복(衣服)·음식(飲食)·시사(市肆)·주

즙(舟楫)·여색(女色)·남요(男妖)·관혼상제(冠婚喪祭)·음역(音譯)·사마(使馬)·농업(農業).

위에서 보듯이 『일관기』에는 일본에 관한 총체적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일본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역대 통신사 파견 역사를 비롯해 국내 노정 및 500명에 이르는 우리 수행원들의 명단까지도 소상히 적혀 있다. 요컨대, 『일관기』에는 일본은 물론이고 양국 교류의 총체적 상황이 종적 횡적으로 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복명할 때 영조와 조엄은 일본에 관한 것들을 하나하나 화제로 올리면서 묻고 답하였다.²⁴⁾ 사행 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여전히 알기 어려운 나라였던 것이다. 사행록은 이렇게 국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에 관한 종합적 정보와 지식을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어졌다.²⁵⁾ 그래서 그 내용은 산천·풍속·관직·법제 및 의복·음식·기명·화훼, 그리고 의절(儀節), 일공(日供) 등에 이른다.

『일관기』 또한 이러한 사행록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를 넘어서서, 「법례」와 「총기」에다 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을 구비하여, 일본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과 일본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그 기록의 방대함과 체계성과 치밀함은 기존 사행록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사실, 일본 문화에 관한 종합적 기록이라면 동 사행의 서기 원중거가 쓴 『화국지』가 전문적이다.²⁶⁾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논평한 일종의 지리지이다.²⁷⁾ 이에

24) 『해사일기』, 「연화(筵話)」, 1764년 7월 8일

25)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29면 참조.

26) 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참조.

대해 『일관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상의 일반적 정보와 함께 ‘현재의 경험 내용’이다. 예컨대, 그는 「총기」에서 각주(各州)를 기록할 때에 늘 태수가 다스리는 곳이 현재 사행이 경유한 곳에 있었는지 여부부터 쓴 다음에, 그 거리, 이칭(異稱), 소속, 명소 등을 밝혀 놓았다.²⁸⁾

한편, 일본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되 『일관기』가 두드러지는 점은 문(文)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미사행 자체가 문화 사절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문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긴 하였다. 그러나 그 ‘문’에 대한 관심의 강도와 그 관심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남옥은 돋보이는 문사였다. 이것은 우선, 그가 문학으로 교류한 사람들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일관기』 춘 뒤에는 ‘창수제인’이라는 항목이 있다. 제목 그대로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데 여기에는 “단지 필어만 나는 자도 덧붙임[只筆語者亦附]”이라는 단서대로, 필담을 나눈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기록 방식은 다음과 같다.

파미주(播摩州) 실진(室津)

...

도국흥(陶國興)자 의자(義作), 호 석병(石屏)·경소산(景小山), 신묘·을해·무진사행 때 창화함.

도국서(陶國瑞)자 맹린(孟麟), 호 남포(南浦), 국흥(國興)의 아들.

가번(加番) 장로 승침(承瞻)호 유천(維天)·갈피(葛岐), 만년산(萬年山) 승.

27) 구지현, 「계미(1763)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9면 참조.

28) 『일관기』, 「총기」, 「각주」. “周防州太守所治不在經過處所經向浦室隔關一稱上關津和並屬周防或云周防爲長門屬州或云與長門並力支供”; “備前州太守之治崗山自牛窓西距數百里曰此村下津牛窓並屬本州牛窓勝不下於福禪”

우선 각 주(州)와 지명을 내놓고 그 아래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하였다. 각 이름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그의 자·호, 직업 또는 직책, 친척·사승 관계, 이전 통신사행과의 창화 여부를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일본인 수가 500명에 이른다. 이것은 전후 어느 사행록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기에서도 노정에서 만난 일본 문사들 이름을 천착이 다 싹게 하나하나 다 적었다. 그는 일본측의 요구에 부응하느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1764년(영조 40년) 1월 대관성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요구가 더욱 폭주해서 누가 무엇을 바쳤는지 이루다 기억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분잡한 와중에도 그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적는 치밀함과 성실함을 보였다.²⁹⁾ 이렇게 기록된 인명은 정리되어, 뒤에 ‘창수제인’을 작성하는 데 바탕 자료가 되었다.

두 번째로 ‘문’에 대한 집중적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노정 중의 ‘화제’이다. 그가 각처에서 일본인들과 만났을 때 주 화제로 삼는 것은 단연 ‘문학’이었다. 두 가지 예만 소개한다.

남옥은 ‘문자를 제법 아는’ 통사왜(通詞倭)택전치(澤田治)에게 대마도에서 ‘글 잘 하는 사람’을 물었다. 택전치가 익지진(益之進)과 기국서(紀國瑞) 두 사람을 꼽자, 남옥은 “섬 안의 문헌이 빈약함을 알 만하다” 평하였다.³⁰⁾ 같은 날짜 『승사록』에도 택전치의 기록이 나오지만, 그것은 문학

29) 『일관기』, 1764년 1월 23일 “留大坂城 覓詩人沓至比昨尤多 以室狹不能容携 兩友使書童以文房隨 出坐大廳張墨壘 雜然進者如蜂蟻之集 迭投詩紙如科場投券之爲 旁作筆語心目眩亂 又不記何人呈何詩 不可隨以酬之 迺使其人各執所進 以來之先後爲序 釋周遵號春溪 萬年長老之徒 近藤章 屈政卿 古世輔 宅恭一稱嚴恭 鳥宗成 前田元一 林成 童子田中正誼 北山皓 千庫由徹 由徹乞王 兪州所題姑蘇十景圖評 蓋寶軸也 矢倉安安 山口純實 野口芳峻 西邨直 岡廷龍 童子劉岑友 藤文禮 林多友直 衢貞謙 北山彰 松方好 篁安敬 勝元緯 釋勇立 藤澤長達 ”

30) 『일관기』, 1763년 10월 30일. “通詞倭澤田治左衛門 稍解文字 畧與筆話 問府中幾

정보가 아니라 대마도의 실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³¹⁾ 남옥이 문학 자체를 화제의 중심으로 삼은 것과는 같지 않다.

정보를 입수한 20여 일 뒤 기국서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 남옥은 먼저 그에게 순암(順菴 : 木貞幹)과 방주(芳洲 : 雨森東)의 문집에 대해 물었다. 방주는 순암의 문도이고 기번실은 방주의 문도이니, 사승 관계를 알고 던진 질문이었다. 그리고 대마도, 이후 강호에 이르기까지 '문목의 현황'을 물었다. 그로부터 들은 답은 대마도에는 글로 이름난 자가 없으며, 대관·경도·강호는 인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지만 조선에 비한다면 '어목혼주(魚目混珠)'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었다.³²⁾

겸사만은 아니었다. 기국서는 실제로 두어 달을 버티다가 비로소 한 절구를 보냈는데 “족히 볼 만한 게 없었다.” 남옥은, 그가 업무 때문에 시 지을 겨를이 없었다는 것은 핑계고 “사실은 졸렬한 재주를 감추어서 추악함을 드러내어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일갈하였다.³³⁾

“동쪽으로 가면 문학과 학술을 볼 만한 문사가 있소?” 하고 물으니 “대관은 잘 알지 못해 논할 수 없습니다만, 평안에는 강백구(岡白駒)·무흠요(武欽繇)·개환(芥煥)·청현(淸絢)이 있고, 동도에는 강효선(岡孝先)·송유시(松維時)·여승유(餘承裕)·우혜(宇惠)·정효덕(井孝德)·복원웅(服元雄)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³⁴⁾

戶 曰可五千 問島內總當幾戶 曰可八千 問誰 能能文 曰大浦益之進一學紀國瑞爲 翹楚 可知島中文獻之貧”

31) 『승사록』, 1763년 10월 30일

32) 『일관기』, 1763년 11월 22일. “問順菴芳洲有文集否 答只有片言隻語 俱無全集 問馬州護行甚多 以文名者多少 答我邦文風 不競諸公 想熟聞 況馬州 叢爾小島 豈有以文名者... 問此去江戶 何州 最多文墨 答大坂京都江戶 俱足人文 溱集之處 但我國文教 不大興旺 若比貴國諸君子 不止魚目之混珠”

33) 『일관기』, 1764년 1월 8일. “紀蕃實始送一絕詩 無足觀 盖不惟其行中 幹當無暇爲詩 實欲藏拙不至 露醜而見笑也”

정잠(井潛)과의 대화 내용이다. 정잠은 비전주(備前州)의 문학(文學)이다. 그 부친 통희(通熙)는 무진사행 때 창수한 사람이었다. 정잠은 부친의 시권을 보여 주고, 또 자신이 주의 문학으로 강호에 오래 있었기에 교유한 문인이 많다고 자랑하였다.³⁵⁾ 이에 남옥은 관심을 표하며, ‘동쪽으로 가면 문장과 학술을 가히 볼 만한 문사가 있는가’ 물었고, 정잠이 자기가 아는 바를 대답하였다.

남옥은, 앞서 기국서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사전에 탐지한 문학 정보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그 당사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곤 하였다. 석 달이 훌쩍 지난 뒤 적판(赤坂)에서 여승유(餘承裕)란 자의 시를 받았는데, 그는 바로 “정잠이 칭도했던 자”였던 것이다.³⁶⁾

기국서와 달리 남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일본 문사들도 적지 않았다. 정잠도 그중 하나였다.³⁷⁾ 특히 그는 100운에 이르는 율시를 지어서 남옥을 놀라게 하였다. 남옥은 곧바로 화답을 하였다.³⁸⁾ 이렇게 화답을 해주자 일본 문사들이 너도 나도 거편(鉅篇)으로 화답을 청해 왔다. 남옥은 이에 대해 “진(秦) 나라 노래가 하(夏) 나라가 되게 한다면 또 어찌 뒷날의 근심이 되지 않겠는가.” 걱정하였다.³⁹⁾

34) 『일관기』, 1764년 1월 13일. “問東去有文章學術可見之士 對云 大坂不熟未可論 平安則有岡白駒 武欽繇 芥煥 清絢 東都則有岡孝先 松維時 餘承裕 宇惠 井孝德 服元雄云”

35) 윗글. “井潛 以其父通熙號蘭臺戊辰唱酬卷示之 且自言 以州藩文學 久遊江戶 交文人甚多”

36) 『일관기』, 1764년 4월 28일 “時憲致唐津文學餘承裕之詩 亦百濟之餘 有文名 井潛所稱道者”

37) 『일관기』, 1764년 1월 13일 “席上五人皆頗謹懃 而井潛則又 另有才格”

38) 이때 남옥은 2경쯤에 쓰기 시작하여 쉬지 않고 써서 완성하니 다투어 올지도 않은 시간이었으므로 정잠이 그 신속(神速)함에 놀랐다고 한다. 이덕무, 『청장관전서』 권50, 「이목구심서」 3.

39) 『일관기』, 1764년 4월 3일. “資衡出百韻 盖以井潛 近藤篤得和而夸張之 人多以鉅

남옥은 일본에 대해 종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면서도 부지런히 문학 정보를 입수하거나 문학 자체를 화제로 삼으며, 문학 교류의 상황과 교류한 일본인들 이름을 낱말이 기록하는 등 ‘문(文)’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출하였다. 이것은 그가 제술관으로서 자기 본분을 자각하고 문학 행위에 대한 남다른 사명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와 같은 관심과 노력에 의해 당시 일본 문학의 판세와 그 객관적인 수준이 정확히 파악될 수 있었던 것이다.

3.2. 시각 : 화이(華夷) 의식과 이성적 거리 두기

계미사행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200년이 지난 시기에 이루어졌다. 그 사이 일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크게 축적되었고,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도 성장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측면에서 관습적인 인식의 테두리를 멀리 벗어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계미사행단이 출발부터 보여 준 것은 전쟁의 상흔에 대한 철저한 환기였다. 영조가 통신사에게 ‘이릉송백(二陵松柏)’의 감개를 표하였던 것이다.⁴⁰⁾ 그리고 이 ‘이릉송백’의 감개는 통신사 일행의 공통된 감정 구조를 이루었다.⁴¹⁾

篇賭和 見百韻者三 二百韻者一 百八十韻者一 此前後 槎錄中所未見者 詩以鬪靡本自可恥 而秦聲之能憂 又豈非日後之憂哉”

40) 『해사일기』, 계미년 8월 3일. “上親誦二陵松柏之句 嗚咽含涕 以寓感慨之意” 이릉(二陵)은 성종(成宗) 정현왕비(貞顯王妃)의 능인 선릉(宣陵)과 중종(中宗)의 능인 정릉(靖陵)을 가리키는데, 1592년(선조 25) 임진년 9월에 왜군들에 의해 이 두 능이 파헤쳐지는 변고가 있었다.

41) 『해사일기』, 「수장록」, <강호에 명을 전달하며 [江戶傳命]>. “親傳御札心如碎 追憶辰年淚欲瀾 萊市蓼椒徒日易 喬陵松柏尙春寒”(조임); “手捧芝函危髮豎 百年 獯鬻愧周官 小華無讀春秋地 清漢空鳴日夜瀾 越恥在心誰不涕 楚盟多意亦難寒 源家倒柄應非久 衰枉天狼倚劍看”(남옥)

사신 일행은 노정에서 연구(聯句) 짓기나 화답시 짓기 행사를 열어서 상호 유대 관계를 확인하곤 하였다. 그중에 두보(杜甫)의 <북정(北征)>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 시작 행사를 한 일이 있었다.⁴²⁾ 조엄은 자기 시는 '외이(外夷)를 제압하는 뜻[制外夷之意]'임을 밝혔다.⁴³⁾ 이 '외이를 제압하는 뜻'이 바로 사신 일행이 <북정>을 차운해서 돌려가며 연구를 짓고, 또 다시 <동정> 연구를 지은 의도이다. 남옥 또한 “주나라 제도로 된 찬란한 우리 의관, 저들이 보면 마음이 꺾일 게야.(衣冠煥周餘 對此心欲折)”라고 읊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임진왜란의 상흔을 회억하고 일본에 대해 우월 의식을 드러내었던 것은 통신사 일행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끄집어내는 일에는 남옥이 그중 부지런하였다.

먼저, '공간'을 매개로 한 역사의 환기이다. 『일관기』에는 일본 노정뿐만 아니라 국내 노정도 자세히 적혀 있는데, 그 노정 중에 만나게 되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유적지는 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동래(東萊)에 머물 때 남옥은 원중거·성대중과 함께 충렬사(忠烈祠)에 참배하였다. 원·성의 경우 이날 기록에서 충렬사에 대한 언급은 딱 간략하다. 이에 대해 남옥은 충렬사에 간 경유와 어디에 누가 배향되었는지 일일이 밝혔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좌병사 이각(李瑑)이 도망간 일에 대해 유생들 보기 부끄럽다는 말까지 덧붙였다.⁴⁴⁾

42) 『일관기』, 1763년 11월 22일. “使亦聯次北征 屬吾輩和之”; 11월 23일. “夜復會三騎船 賦東征聯句 次北征韻”.

43) 『해사일기』, 1763년 11월 22일. “夜三使相會 聯次杜工部北征七十韻 雞鳴始訖... 莫言蠻性巧 當示我政豁 漢用制南越 唐以服回紇者 是余制外夷之意也”

44) 『일관기』, 1763년 8월 22일. “與兩友出東城 拜忠烈祠 值秋享齊日 有五六章甫 觀宋忠烈鄭忠壯城陷殉身圖 讀尤翁二忠傳... 卷甲棄兵躍馬北走者 左兵使李瑑也

또한, 일본 노정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관계를 환기하는 장소에서는 으레 관련된 우리 인물들을 불러내었다. 축전주(筑前州)의 남도(藍島)는 신라의 박제상(朴堤上)이 순절하고, 고려의 나흥유(羅興儒)가 포로로 잡혔으며, 정몽주(鄭夢周)가 시 <홍무정사봉사일본작(洪武丁巳奉使日本作)>을 지었던 곳이다.⁴⁵⁾ 남옥은 일본에서 역사의 현장에 임하여, 과거 사신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충의와 공적을 추모하였다.

다음으로, ‘표현’이나 ‘명칭’을 통한 우월 의식의 노정이다. 그는 일본인들이 통신사 행렬을 구경하러 뻥뻥하게 늘어선 모양을 보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다.” “물고기가 알을 낳은 것 같기도 하고 벌레가 썩은 고기에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했다.”라고 하여,⁴⁶⁾ 비하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관백, 대마도주 등 일본의 정치 실력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에서도 화의 의식을 드러내었다. 예컨대 ‘만추(蠻酋)’ 혹은 ‘도추(島酋)’라는 표현이 총 8~90차례나 나오는데, 이 출현 빈도는 다른 사행록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이다.

남옥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격하게 대처한 것은 역시 외교 의례 문제였다. 상근관(箱根關)을 지날 때, 일본측은 사신 일행으로 하여금 말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승사록』에는 별다른 항변이 없고, 『해사일기』에는 전례에 의하여 내려서 가기는 했으나 “말에서 내려야 할 의의가 없는 것이다.”라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남옥은 ‘주인은 예(禮)를 잃고 손님은 의(義)를 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니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며 이 내용을 강호(江戶)의 빈객을

拜祠畢 謂齋生曰 諸君將事此祠 吾儕甘心 是役非但愧謁忠靈 羞見諸章甫也”

45) 『일관기』, 1763년 12월 5일 “蓋筑前舊倭都 至今猶稱西都 羅麗奉使者 修聘於此 朴堤上之殉義 羅興儒之被拘 圃隱先生梅窓春色板屋雨聲之作 皆於是地”

46) 『일관기』, 1764년 2월 16일 “鱗鱗戢戢不似人類 如魚之卵殖 如虫之腐聚”

주관하는 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⁴⁷⁾ 그리고 마침내 강호에 전달할 한 통의 글을 써서 주었다.

도훈도(都訓導)로서 나졸의 지휘를 담당하던 최천종(崔天宗)이 대마도인의 칼에 피살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변고를 만난 이후에는 문필을 끊었으므로 의리상 갈 때처럼 수창할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일체의 수응을 거절하였던 것⁴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식과 대응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우월 의식 내지 화이 의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술관이라는 직책이 그런 의식을 문자로 표현하는 데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술관은 통신사 일행의 문서에 관한 업무와 외교 사무를 담당한 실무자였으므로, 누구보다 의리 명분에 충실해야 했고 또한 양국의 상호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기 쉬운 외교 의례 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아닌 경우, 남옥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판단하였다. 문물 제도에 관련해서는 그 장단점을 구별하여, 단점은 경계하고 장점은 받아들였다. 그중 척도의 정확함, 선박의 견고함, 법의 엄격함 등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의 감식안과 통찰력이 특히 잘 발휘된 방면은 인물인데, 문학·학술·예술 방면의 인물 품평에서 더욱 뛰어나다.

47) 『일관기』, 1764년 2월 13일. “午後出兩重門 馬州倭與地方禁倭交口請下與馬 問其故不詳 苟是關白香大之所 則不爲無說 今不見一間祠廟 只兩門對設之關 何據而下之 前者既下 勢難獨異 乍下還乘 將辨詰其謬例”; “以門關下馬大是謬誤 主爲失禮 賓爲失義 不可以從前因襲 不思釐革 亟言于護行長老 俾歸時改之之意告魯堂 使明白開陳於維天 轉言于江戶主客者”

48) 『일관기』, 1764년 5월 15일 “皆以遭變故 後斷棄文墨 義不得迭唱如去時爲言”

49) 장순순, 앞의 논문, 64면 참조.

기국서의 경우처럼 일본의 문학 수준은 대체로 졸렬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한가지로 폄하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번 행차에서 본 바를 가지고 논하면, 유수우신(留守友信)의 학문은 조금 바르나 비루하고[稍正而陋], 남궁교(南宮喬)의 학문은 해박하나 치우쳤다[博而訛]. 지방언(柴邦彦)의 시는 광방하나 다스려지지 못하고[宏而不殺], 강전의생(岡田宜生)의 시는 담박하나 힘이 부족하다[淡而少力]. 나파사증(那波師曾)의 해박함과 구정로(龜井魯)의 재주는 그중에 뽑힐 만하며 합리(合理)·정잠(井潛)·축상(竺常)이 또한 그 다음이다.⁵⁰⁾

위 글은 ‘이번 행차에서 본 바를 가지고 논하면’(以今行所見論之)이라는 말로 시작한다.⁵¹⁾ 이것은 그가 과거의 기록이나 누구로부터의 전문(傳聞)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현재 일본 문학의 현실을 구체적인 문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잠은 앞서 살펴본 바 있거니와, 이 중에서 품평의 수위에 오른 나파사증과 구정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나파사증은 통신사 일행과 수천 리를 왕복하면서 창수와 담화의 즐거움을 함께 나눈 사람으로, 남옥으로부터 문학에 뛰어내고 경사(經史)에 통달하다는 칭찬을 받았다.⁵²⁾ 구정로는 21

50) 『일관기』, 「충기」, 「문장」. “以今行所見論之 留守友信之學稍正而陋 南宮喬之學博而訛 柴邦彦之詩宏而不殺 岡田宜生之詩淡而少力 那波師曾之淹該 龜井魯之才藻 其選也 合離正潛筑常 亦其次也”

51) 『일관기』, 「충기」, 「서화 부인장서책(附印章書冊)」도 “今行所見者”로 시작하여 각 인물의 서·화를 평가하였다. “今行所見者 張九巖之勁適 富野義胤之濃厚 合離之才精 俱可謂工於筆者 平麟之精工 中三寶之有法 可爲達於印學者”

52) 『일관기』, 1764년 1월 25일 “西京州藩授經那波師曾 字孝卿 號魯堂 貌不揚而文學長博通經史 與醫士富野義胤字仲達 俱託維天長老之行爲書記 蓋欲與吾輩同往返千里 極酬唱談燕之娛 其誠與志可嘉” 남옥과 나파사증의 문학 교류에 대해서는 김성진, 「게미사행시의 남옥과 나파사증」, 『한국문학논총』 40, 2005 참조.

세의 청년인데, 그 “시필(詩筆)이 펄펄하고 재기가 대단히 날카로웠다.”⁵³⁾ 심지어 같은 일본인들로부터도 시기를 받아 통신사 일행과의 접촉을 저지당할 정도로 특출하였다.⁵⁴⁾

남옥은 길고 먼 노정 중에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만나서 문학을 교류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일본 문학‘들’을 ‘구분’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중 우수한 자들을 접하고는 일본 문학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⁵⁵⁾ 아울러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적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비천하여 견문이 없는 자는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지만 만약 안목이 있는 자라면 시문은 구하되 서화는 거의 구하지 않는다. 물쌍백(物雙栢)과 같은 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거칠어서 죽히 본받을 것이 없다고 하여 비웃고는 와서 구하지 않았다. 이는 대개 그 수용한 것 가운데 거칠고 조잡한 말들을 보고 한쪽으로부터 물어본 것이다.⁵⁶⁾

남옥은, 일본의 글씨와 그림이 비록 경박하고 유약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자관이나 화원이 당할 수 있는 바는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저들이 우리 서화를 ‘인판체(印板體)’니 ‘병풍체(屏風體)’니 이르는 것은 낮추어 보는 뜻이라는 것이다.⁵⁷⁾ 견문이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서화를 구

53) 『일관기』, 1763년 12월 8일 “龜井魯年甫二十一 詩筆翩翩 才氣甚銳

54) 『일관기』, 1763년 12월 13일. “蓋井土嶋村輩 見吾輩款愛有加 阻其來 使不得重獲 褒誦也”

55) 『일관기』, 1763년 12월 8일 “魯也才調 雖以我國言之 可謂夙慧穎拔者 且初接蠻儒 未曾見可語者 稍令人開眼”

56) 윗글. “然下賤無所見者 偏求之 若其有限者 求詩文而罕求書畫 如物雙栢者 以韓人之詩草率不足法 笑之而不來求 蓋見其酬應 潦率之語 而驅之於一科”

57) 윗글. “書畫雖皆輕弱 要非我國寫字官畫員 所可當者 富野義胤周宏輩 以寫字官書 謂印板體 畫員畫謂屏風體 蓋卑之也”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시문의 경우에도 몰쌍백 같은 자는 “우리나라 사람의 시를 거칠어서 죽히 본받을 것이 없다.” 하고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옥은, 그가 우리 시 가운데 거칠고 조잡한 것들만 보고 일괄적으로 몰아붙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측 자체의 수준이 성장하여 이제는 만만히 알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님을 간과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의원 중에도 유학자가 많았다. 이번 행차에서 구경로·부야의운 같은 자들이 모두 의술로 행세하는 자들이었다. 이에 남옥은 앞으로 양의는 의술과 문학에 능한 사람들 중에서 정선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다.⁵⁸⁾

인하여 “그 나라의 문장이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가,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열이 또한 어떠한가.” 물으시기에, “이전 사행 때는 잘 알지 못하오나 문기(文氣)가 점점 열려서 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곧 중화와 오랑개와 같은 차이가 있으니 우열을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⁵⁹⁾

복명할 때의 기록이다. 그는 영조의 물음에 대해, 일본의 문기가 점점 열려서 전보다 나은 것 같다'라고 하였다. '중화와 오랑개와 같은 차이' 운운은 기본적인 의식이니 특별한 것이 못 된다. 그보다는 '문기가 점점 열려서 전보다 낫다'라는 말이 남옥이 일본에서 겪은 실체함에 바탕하고 또한 그의 이성적 거리 두기에서 나온 객관적인 평가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58) 『일관기』, 「총기」, 「의약」. “醫中儒學者多 如物雙栢 及今行所見龜井魯富野義胤 皆以醫行者也 我使之帶良醫 不可不精選 醫術文學之人 以取其笑也”

59) 『일관기』, 1764년 7월 8일. “仍問 彼邦詞翰此前何如 比我國優劣亦如何 對以前行 時未詳 而文氣漸闢 似勝於前矣 然若比我國則 有華夷之別 恐不當以優劣論”

한다.

신유한은 일본인들에게 써 준 6,000여 수를 통해 시재에 대한 자기 도취에 빠졌었다.⁶⁰⁾ 그러나 남옥은 신유한에 비견되는 시재를 가지고 있었지만 도취나 자만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았다. 「총기」 뒷부분에서 사행의 폐단을 총체적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3.3. 쓰기 : 방대한 구성과 절제력 있는 서술 방식

대상의 문제와 보기의 문제는 결국 쓰기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일관기』는 일본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그 견문을 ‘글’로 드러낸 작품이다. 과연 『일관기』는 어떠한 서술 방식을 통하여 견문의 내용을 드러내었는가.

사행록은 일기(日記)와 기행(紀行)의 결합체이다. 사행 문학의 특수성은 대부분의 사행록이 일기체 기행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일관기』는 거기에다 앞뒤로 「범례」와 「총기」가 붙어 있어서, 사행록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완성된 체재를 갖추고 있다.

남옥은 일본에 대해 종합적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종합적 관심은 다른 사행록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보통 사행록에는 서계·물목 등이 첨부되어 있고, 「문견별록」이란 기록이 덧붙여져 일본의 정치제도·역사·풍속·언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적혀 있기 마련이다.⁶¹⁾

그러나 『일관기』의 경우 구별되는 점이 있으니, 첫째는 그 방대한 분량이다. 일자별 일기를 빼놓고 「범례」와 「총기」만 해도 1책 반 가량이나 된다. 「범례」의 경우 1책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그 안은 모두 4권으로 구성

60)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241면 참조

61) 위의 책, 46면 참조.

되어 있다. 「총기」는 반 책 분량이며 각 방면에 걸쳐 일본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중 「범례」의 권2 노정(路程)에서 분로(分路)까지를 예로 들어 보자. 『해사일기』에는 같은 내용이 ‘노정기’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 대마도에서 시작해서 무장주(武藏州)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와 달리 『일관기』에는 ‘노정’, ‘승선’, ‘하륙’, ‘분로’의 넷으로 나뉘어 있다.

동래부(東萊府). 60리. 같은 달 20일의 숙소. 하룻동안 머물.

일방과 삼방은 동래부사 한만순(鄭晩淳).

이방은 기장현감 하명상(河命祥).

부산진(釜山鎭). 20리. 같은 달 22일에 도착해서 44일 동안 머물며 바람을 살핌. 첨사 이응혁(李應赫).

‘노정’ 부분이다. 노정에서는 서울의 양재역(良才驛)부터 부산진(釜山鎭)에 이르기까지 거쳐간 모든 곳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에서 보듯이, 거리, 숙박일, 지공(支供), 그리고 각 고을의 수령 이름까지 적혀 있다.

한편, ‘승선’에서는 대마주에서 정포(淀浦)까지, ‘하륙’은 왜경에서 강호까지 기록하였다. ‘분로’는 일방·이방·삼방을 각각 나누어서 기록하였다. 이렇게 서울을 출발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사행의 전 노정을 포괄하였으니, 분량이 방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두 번째 특징은 체계적인 구성에 있다. 전체적으로 『일관기』의 구성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춘-하-추-동의 절서(節序)에 따라 춘에는 ‘범례’를, 하·추 그리고 동의 앞부분에는 일기를, 동의 뒷부분에는 「총기」를 넣었다.

다른 사행록에서 「범례」만을 분책하여 독립한 예는 보이지 않거니와,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구성의 체계성이 뛰어나다. 권1은 사례(事例)에서 좌목

(座目)까지, 권2는 노정(路程)에서 분로(分路)까지, 권3은 서계(書契)에서 예분(例分)까지, 권4는 공대(侍待)에서 창수제인(唱酬諸人)까지이다. 역대 통신사 파견 역사로부터 해서 각종의 의식, 노정, 외교 문서, 물품, 그리고 마지막 창수제인에 이르기까지, 사행의 길잡이가 될 만한 것들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아 정보의 양 및 전달력을 극대화하였다.

한편, 일자별 일기도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날짜, 간지, 날씨, 간략한 여정을 쓰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순차적으로 쓴 다음, 행리(行里)를 써 놓았다. 이러한 형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방대한 정보량에도 불구하고 딱 안정되어 보인다.

이와 같은 구성을 만드는 데 참고가 된 것은 무엇이였을까. 남옥이 휴대하여 간 사행록 중에 『일관요고』란 책이 있었다.⁶²⁾ 「범례」의 경우 그 전체적인 구성은 이 책에서 따온 듯싶다.⁶³⁾ 「범례」의 ‘창수제인도 이것의 ‘정묘수창인(丁卯酬唱人)’의 예를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구성의 발상은 따왔어도 수록 내용의 분량이나 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양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묘수창인’의 경우 수록 인물이 20명이 채 안 되는 데 반해 ‘창수제인’은 500명에 이른다.

62) 『일관기』, 1764년 4월 3일. “紛然來往客散後收書卷 日觀要攷一冊忽失所在 盖雜蠻竊之也”

63) 『일관요고』는 필사본, 1책으로 1748년 무진사행(영조24) 때 의식 문서 등에 관해 기록한 책이다. 편지는 미상이다. 서두에 고려 말기부터 1675년(숙종 1)까지 있었던 일본과의 외교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과 함께 통신사원액(通信使員額)·선문(先文)·우도(右道)·수륙노정(水陸路程)·경외노자(京外路資)·삼사신사예단(三使臣私禮單)·회수예단(回受禮單)·국서(國書)·국서식(國書式)·전명의(傳命儀)·수회답의(受回答儀)·치제의(致祭儀)·사례(事例)·연례송사(年例送使)·차왜(差倭)·인물(人物)·성명(姓名)·황계(皇系)·지지(地誌)·도리(道理)·정묘수창인(丁卯酬唱人) 등이 기록되어 있다

「총기」의 경우는 어떨까. 「총기」의 성격 자체는 이전 사행록에서 보이는 ‘문견별록(聞見別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역시 분량과 서술의 체계성은 단연 우세하다. 「범례」도 그랬거니와, 「총기」도 각 내용 단위로 표제를 설정해 놓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문장(문장)에는 문자가 없었는데 백제(百濟)의 왕이 왕인(王仁)과 아직기(阿直岐) 등을 파견하여 비로소 경적(經籍)을 교수했다. 백제의 왕인은 아직도 그 자손이 있다.

(중략)

임도춘(林道春) 호는 나산(羅山). 문필과 학문으로 처음으로 제주(祭酒)가 되었고 자손이 세습했다. 지금의 제주 임신언(林信言)의 고조이다. 문인이라고 일컫는 자가 온 나라에 산재해 있다.

기존 「문견별록」은 항목의 구분 없이 그대로 써서 열독성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일관기』의 「총기」는 각 내용 단위로 표제(標題)를 설정하고, 제목의 등위에 따라 글자 크기를 다르게 배치해 놓았다. 전문한 것을 모아 놓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편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치밀한 서술이다. ‘창수제인이나 노정 등을 살펴본 데서도 알 수 있거니와, 그 날날이 적는다’는 기록 태도는 놀랍다.

적간관(赤間關) 아가석이(阿駕石伊). 하관(下關)이라고 일컬어짐. 장문주 소속. 일명 적마(赤馬) >>. 60리 <<같은 달 27일에 도착해서 정박함. 4일 동안 머물. 갑신년 5월 21일에 돌아와서 정박해 2일 동안 머물. 본주의 태수가 지공함. 관소는 미타사(彌陀寺). 백마총(白馬塚). 안덕묘(安德廟). 문자성(文字城).

「범례」의 ‘승선(乘船)’ 중 적간관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는 적간관의 일본음 ‘아가석이(阿駕石伊)’까지 적고, 또 그 별칭, 소속 주, 거리, 갈 때 올 때의 체류 상황, 지공, 숙소, 명소 등을 적었다.

한편, 「범례」의 ‘공대(供待)’에서는 각 주마다 대접받은 음식들을 기록했는데, 대마주와 비전주(肥前州) 일기도(壹岐島)의 경우 삼사, 상상관,

상관사·제술관, 상관·차관, 중관, 하관등 직책별로 나누어 적었다. ‘축전주(筑前州) 남도(藍島)’와 ‘장문주(長門州) 적간관(赤間關)’의 일공부터는 ‘줄어든 것’, ‘더해진 것’, ‘처음 있는 것’, ‘없어진 것’과 같이 표제를 세워서 그 물목을 죄 적었다.

네 번째 특징은 절제력 있는 서술에서 찾을 수 있다. 남옥은 치밀하지만 군더더기를 붙이는 법이 없다.

1763년 10월 18일에 정사 및 사문사 등이 모여서 둥근 구리 화로[圓銅爐]를 제재로 하여 시를 지었다.⁶⁴⁾ 이렇게 지은 시들을 종사관 김상익(金相翊)이 등급을 매겼는데 남옥이 1등, 조엄이 2등을 차지했다. 이날 밤에 남옥과 원·성 두 서기는 따로 모여 또 시를 지었다.

같은 날 같은 일을 두고 기록한 것인데도 그 분량이나 서술 방식은 상이하다. 『해사일기』의 기록⁶⁵⁾은 분량도 적당하고, 서술이 딱딱하지 않고 너그럽다. 조엄의 넉넉한 성품과 사행단의 수장으로서의 여유가 엿보인다.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승사록』이다.⁶⁶⁾ 원중거는 날씨 얘기에다 일공 얘기가까지 넣고, 화로를 가지고 시를 짓게 된 정황을 상세하게 말했다. 자기가

64) 참여한 사람은 정사 조엄 및 사문사, 그리고 반인(伴人)으로 삼방 소속인 홍선보(洪善輔)등이다.

65) 『해사일기』, 1763년 10월 18일. “晴西風 留大浦 ○ 與四文士詠圓爐詩絕句各一首 要從事官評等 南製述居一 余居二 余詩第三句有曰 顛沛流離心輒正 從事雖加批點 而未覺其作矣 及聞而知之 始乃曰詩外有可驗者 而吾未覺知 不得致魁 可歎爲言 殊涉一笑”

66) 『승사록』, 1763년 10월 18일. “小雪日也 北風 夜又大風 因留大浦 ○ 五日供昨日 只納糧米不納各種 今朝又延拖不納 食後始畧畧了當日供 則因廢不納云 食後始畧畧了當日供 則因廢不納云 食後拜上房 使相命賦圓爐拈硬韻 使應聲對 余作最後 使相亦有所占 命士執以 畧序列書 考於三房 時韞爲一 次使相士執士安 余居末 時韞許以紙筆賞 是日風益烈 客懷無以堪 夜往兩友所 適有蓮幕來 願穩話而罷 時已三更初矣 計午間所賦銅爐 塩字合爲九十字 每小紙各書一字爲九十片 散於席上亂次以收 使龍澤握在手中 隨意拈出一字 以年次受而賦之 合爲九十韻排律 才得終篇 日已開明矣”

꽃등이었던 것까지 털어놓았다. 흥미진진하기는 으뜸이다. 밤에 따로 모여 시를 지은 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써놓았다. 분량이 제일 적은 것은 역시 『일본록』이다.⁶⁷⁾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상록』 자체가, 성대중이 그때그때 보고들은 것을 생각나는 대로 툭툭 던지듯이 쓴 글이긴 하다.⁶⁸⁾

소설(小雪). 대포(大浦)에 머물렀다. 바람이 어지럽게 불고 파도가 높이 일었다. 사상이 강운(強韻)을 불러서 각각 원동로시(圓銅爐詩)를 짓게 하고 종이 부채와 붓과 먹으로 사례했다. 밤에 두 벗과 모여서 연구(聯句)로 동로시를 짓는데 염(鹽)자로 몰운(沒韻)하였다. 용택(龍宅)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한 글자씩 뽑게 하여 모두 90자로 작품을 이루었다. 어느덧 동방이 흰하게 밝았다.⁶⁹⁾

『일관기』의 기록이다. 다른 세 기록과 비교해 볼 때 남옥의 서술은 요설스럽지도 않고 야박하지도 않다. 넘치는 말도 없고 빠지는 말도 없다. 『승사록』은 특정 에피소드를 확장 또는 과장하여 상세하게 쓰는 데 반해, 『일관기』는 간추려서 조리 있게 서술하는 편이다. 특히, 자기의 자량이 될 만한 부분은 생략하거나 요약적으로 제시할 뿐이다. 위 기록에도 자신이 1등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넣지 않았다.

구성이 방대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은 것은 그 체계성 덕분이고, 서술이 치밀하면서도 요란스럽지 않은 것은 그 절제력 덕분이다. 이 서술의 절제력은 대상에 대한 이성적 거리 두기가 글쓰기에 발현된 한 양상이다. 이

67) 『일본록』, 1763년 10월 18일 “風 夜賦銅爐聯句 沒鹽韻”

68) 홍학희, 「해제: 『일본록』 사행일기와 건문록의 만남」, 『부사관 비파호를 날 듯이 건너』, 소명출판사, 2006 참조.

69) 『일관기』, 1763년 10월 18일 “小雪 留大浦 風亂浪高 使相喚強韻 使各賦圓銅爐 以紙筆筆墨酬之 夜會兩友 聯句賦銅爐沒鹽字 使龍宅 隨意拈一字 凡九十字篇成 不知東方之既白”

절제력의 근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제술관이라는 직책의 측면이고, 하나는 그 본래의 성품 또는 의식의 측면이다.⁷⁰⁾ 또 하나는 제술관이라는 직책의 측면이다. 이것이 한데 만나서, 자기 중심을 잡되 개인적 주관의 노출을 자제하고 대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4. 나오는 말

남옥은 계미사행의 제술관으로서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일관기』는 그 문학적 산물이다.

그는 일본에 대해 종합적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관해 알고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면서도 특히 ‘문(文)’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표출하였다. ‘창수제인’ 항목은 단적인 예이다. 한편, 그는 기본적으로 화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이성적인 거리를 두고 판단하는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이것은 문학·학술·예술에 관한 분야에서 더욱 뛰어나다.

이와 같은 관심과 시각은 서술에 반영되었다. 『일관기』의 구성은 종합적 관심을 충분히 담아 낼 만큼 방대하되 체계적인 구성 덕분에 안정적이다. 그것이 취하고 있는 구성과 체계는 사행 체험과 일본에 관한 정보를

70) <뜻을 보임(示意)>이란 시를 다룰 때도 언급했지만 그는 제술관으로서 상대의 강 또는 유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본래의 성품 또는 의식의 측면이기도 하였다. 심지어 선장이나 격졸마저 뱃멀미로 고꾸라지는 와중에도 홀로 흔들림 없이 배다락에 올라가 <도해시(渡海詩)> 수십 절구를 지었던 일화는 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이었음을 보여 준다. 『일관기』, 1763년 10월 6일. “今日之役 同船醫譯武士書畫及從奴 固可勿論 至於船將格卒 亦多顛仆 而余獨了無迷眩之意 終日登樓 次淵翁詩 賦渡海詩數十絕”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고안이다. 기록은 치밀하여 빠뜨린 것이 없지만 서술의 절제력 덕분에 야단스럽지 않다. 이와 같은 균형 감각이야말로 『일관기』의 큰 미덕이다.

그런데, 남옥은 기술 문명에 대해서는 특별하다 할 만큼의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학술의 경우에도 문학만큼 몰두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일본에 대해 종합적 관심을 갖고 기울어짐 없이 각 분야를 골고루 기록한다는 의식, 그중에서도 제술관이라는 직책상 문(文)에 집중하여 기록한다는 의식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술 문명이나 학술에 관한 한 원중거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들여 기록하였으니, 그러서는 상대적으로 문학 쪽에 더 다가서 있던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것은 그가 별도의 시집을 2종이나 만들었던 데서도 입증된다. 『일관기』 안에는 시가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다. 대신 『일관창수』와 『일관시초』가 독립되어 있다. 객관적인 서술과 주관적인 서술을 분리하여 각 책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시에, 문학적 능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한 시집을 분리함으로써, 자신의 제술관으로서의 능력과 자부심을 마음껏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이 3종을 모아 놓고 보면 그는 다양한 형식을 가장 잘 완비하여 사행 체험을 문학적으로 극대화한 인물이 된다. 사상적 측면 이전에 체험을 기록하는 방식 자체만으로도 그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일관기』의 성과는 그동안 축적되었던 사행의 체험과 사행록의 전통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가깝게는, 남옥은 자신과 여러 모로 비교되는 신유한의 『해유록』을 의식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선후기 통신사행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그는 기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넘어서서 내용상 더욱 상밀(詳密)하고 구성상 가장 완정된 체계를 갖춘 사행록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한편, 동 사행의 관련 속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사행록이 대거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를 비롯하여 삼서기들도 모두 당대에 문명이 높았던 사람들이다. 재미사행은 사문사가 모두 사행 관련 기록을 남긴 이례적인 사행이었다. 정사는 물론 군관도 사행록을 남길 정도가 되었다. 이들의 사행록은 저마다 처한 신분과 맡은 임무에 따라 그 관심사와 서술 방식을 서로 달리하였다.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셈이다.

제술관 남옥의 『일관기』는 바로 이러한 종적 역사와 횡적 관련 속에서 자기 위치를 뚜렷하게 갖는다.

『일관기』는 일본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데도 중요한 길잡이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국내 지식인들에게 전해져 새로운 정신사의 출현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남옥이 정쟁에 희생되면서 『일관기』도 묻혀져 그 기여의 폭이 제한되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제 12차 신미사행이 대마도에 서의 역지교빙(易地交聘)의 형태로 바뀌는 것은 그의 비판과 개선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일관기』의 시각과 정신은 다른 사행록들과 함께 18세기 후반 그리고 이후 조선 사회와 한일 관계에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데 일조하였을 것으로 믿는다. 지금까지 조선후기 정신사는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운위되어 왔거니와, 이제는 한·중·일 삼국의 관련 속에서 더욱 공평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구지현, 「계미(1763)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구지현, 「『계미수사록』에 대한 재검토-작가와 사행록으로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3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61-288쪽.

- 김경숙, 「현천 원중거의 대마도인 인식과 그 의미」,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185-221쪽.
- 김경숙, 「『승사록』의 서술방식과 사행록으로서의 의의」, 『한국문화연구』1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6, 199-233쪽.
- 김성진, 「남옥의 생애와 일본에서의 필담창화」, 『한국한문학연구』19, 1996, 273-300쪽.
- 김성진, 「조선후기 통신사의 기행시문에 나타난 일본관 연구」, 『도남학보』15, 1996, 155-184.
- 김성진, 「계미사행시의 남옥과 나파사증」, 『한국문학논총』40, 2005, 111-137쪽.
- 박재금, 「원중거의 『화국지』에 나타난 일본인식」,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223-248쪽.
- 신익철, 「18세기 중반 초립체 한시의 형성과 특징-이봉환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19, 2001, 35-65쪽.
- 안대회, 『18세기 한국 한시사 연구』, 소명, 1999, 1-397쪽.
- 이동찬, 「계미 통신사행 기록의 장르 선대-『해사일기』와 <일동장유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18, 1996, 47-62쪽.
- 이원식, 『조선통신사』, 민음사, 1991, 1-465쪽.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1-467쪽.
- 이혜순·박재금 외, 『우리 한문학사의 해외체험』, 집문당, 2006, 1-366쪽.
- 임형택, 「계미통신사와 실학자들의 일본관」, 『창작과 비평』85, 1994, 319-339쪽.
- 장순순, 「조선후기 통신사행의 제술관에 대한 일고찰」, 『전북사학』13, 1990, 33-73쪽.
- 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해행총재』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112, 75-104쪽.
- 하우봉, 「원중거의 화국지에 대하여」, 『전북사학』11·12, 1989, 237-253쪽.
- 한태문, 「조선후기 통신사 사행문학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ABSTRACT

The study on 『Il-kwan-ki (日觀記)』; its 'object', 'seeing' and 'writing'

Kim, Bo-Kyoung

This thesis aims to examine on 『Il-kwan-ki (日觀記)』 which was written by Nam-Ok (南玉 : 1722~1770) using the key codes of 'object', 'seeing' and 'writing' and to clarify its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As a writer (Che-sul-kwan : 製述官) for Kye-mi-sa-haeng (癸未使行 1763~1764), Nam-Ok had a self-conceit and a sense of duty. 『Il-kwan-ki (日觀記)』 is the literary product in that period.

First of all, he was concerned about Japan on the whole and made a record all about what he observed in Japan. And his concern on literature was shown in the facts that he made literature itself the topic subject in his writing and that he made a record the names of companies whom he associates with literature in details.

Second, basically his thought was Sinocentric, but in any case, judging its objects and reflecting ourselves as Korean, he took a rational and objective attitude. We can find the excellence in this respect, especially in the area of literature, arts and sciences.

Third, despite its richness in contents, the composition of 『Il-kwan-ki (日觀記)』 is systematic and its style is elaborate and concise. Its form of describing is designed to convey the information and his experience to his audiences effectively. Being an envoy's record on visiting other country, 『Il-kwan-ki (日觀記)』 has the significance as another way of recording one's experience. And it is regarded to contribute to bring a turning point in the history of the thought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eon Dynasty.

Key Words Nam-Ok (南玉), Il-kwan-ki (日觀記), Tong-shin-sa (通信使), Kye-mi-sa-haeng (癸未使行), Che-sul-kwan (製述官)

논문투고일 : 2006. 11. 10

심사완료일 : 2006. 11. 22

게재확정일 : 2006. 12. 1